

전선업계, 인수·합병(M&A)·사업 재편 등 자발적 구조조정 '가속화'

업계, 긍정적 방향으로 재편 가능성 평가

최근 전선업체 간 인수·합병(M&A)과 사업 재편 등 자발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에 허덕이고 있는 전선업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산 소재 전선업체 아이티씨는 강원도 춘천의 대한엠앤씨 공장을 46억원에 매입했다.

아이티씨는 철도용 조가선을 비롯해 전력·제어용 케이블, 시판용 전선, 통신용 케이블 등을 주로 취급하는 중소 전선 제조업체로, 재무건전성이 탄탄한 기업으로 업계에서도 유명했다.

대한엠앤씨는 전력·통신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해온 기업으로, 최근 3년간 2013년 777억원, 2014년 689억원, 2015년 32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이티씨는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해 M&A 매물을 모색했고, 마침 대한엠앤씨 공장이 경제 매물로 나와 2번의 유찰을 거쳐 대가 가격이 떨어지자 매입을 결정, 45억

7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달 말까지 대금 지급을 마치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

이와 함께 연간 2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서울전선은 현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사이자 업계 중견기업인 두원전선을 인수했다.

나아가 서울전선은 화성전선과 베트남에 공동으로 설립한 SH비나케이블을 지난 1월 전선소재 기업인 갑을메탈과 동일 그룹 내 전선 제조사 코스모링크 컨소시엄에 전격 매각하기도 했다.

갑을메탈·코스모링크 컨소시엄은 이번 인수를 통해 베트남 전선제조·소재, 나아가 건설 시장까지 진출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 LS전선은 시공 사업을 자회사인 빌드윈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며, 같은 그룹 내 전선업체이자 중저압시장 1위인 가온전선과 미얀마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이밖에 전선조합 회원사였던 진천의 오성케이블, 음성의 한솔전선 등이 폐업했으

며, 업계 선두권 기업들의 M&A도 예정돼 있어 당분간 전선업계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쇠락하고 있는 전선업체가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탈출의 단초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가 지난 수년간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막상 실행은 하지 않았던 구조조정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내 전선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전선업계 한 관계자는 "저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전선시장의 규모가 작아지고 공급과잉과 출혈경쟁 등으로 불공정경쟁, 불법·불량제품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이 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한 시장재편이다. 최근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위기에 빠진 전선산업이 다시 살아날 단초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일 기자 kube@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

에너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팀을 이뤄 해외로 진출한다. 공기업은 풍부한 경험, 민간기업은 기술력, 금융기관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외 진출 활성화와 수출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영환 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3면

제4회 전기차 엑스포 광파르

17~24일 제주 여미지식물원 일대...150여사 등 역대최대
주영환 장관 "엑스포 통해 기술·안전·표준 등 전략 제시"

국내 최대 전기차 전문 전시회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개막했다. 엑스포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제주 여미지식물원 일대에서 열린다.

"전기자동차의 미래 그리고 친환경 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전기차 엑스포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지난 2014년 1회 행사 당시 42개 기업이 참여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150여개사에 이르는 전기차 기업

들이 참여한다. 관람객 수도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환 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에 열린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1873년 영국에서 발명된 전기차가 140여년이 지난 2017년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거듭나고 있다"며 "엑스포를 통해 기술·안전·표준·인증·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엑스포 전시장은 규모가 커진 만큼 기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여미지식물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여미지식물원의 2300여종의 식물과 함께 전기차를 동시에 구경할 수 있다. 엑스포 측은 이에 대해 '전기차와 자연의 융합'으로 친환경 컨셉트를 부각했다고 밝혔다.

전시회 첫날 열린 EV 서밋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그린비행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영사를 했고, 황승호 현대차 부사장이 '커넥티드카의 미래비전'에 대해 발제해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웅범 LG화학 사장 등이 발표를 진행했다.

▶3면에 계속
위대용 기자 wee@

한전, 스마트스틱 공법 시범 적용

5월까지 전국 4개 사업소에서 검증 후 전국 확대기로
스마트스틱 2단계사업 등 현장 안전강화 대안 마련도

한전은 배전공사 현장 작업자가 전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 스틱 공법 시범운영에 나선다.

한국전력 배전운영처(처장 권오득)는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전국 배전공사 시공 현장 4곳에서 '스마트 스틱(Smart Stick) 공법'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광주전남지역본부 직할, 전북지역본부 직할, 경기 안산, 거제 등 4개 사업소와 한전 배전운영실에서 교육용 2곳 등 총 6개 사이트에서 스마트 스틱 공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협력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시 스마트 스틱 시연회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스마트 스틱 공법의 현장 적용성과 수장·보관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5월 이후 전국사업소에 공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역의 스크린도어 사고&배전공사 현장 작업자 감전사고 등 '사람 중심, 안전 최우선 공법' 개발 요구

한전은 1965년 창사 이래 간접활선공법을 배전공사 현장에 운영해 왔다. 이후 고품질 전력공급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2년 직접활선공법, 1994년 무정전공법을 차례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1987년 275분에 달했던 호당정전시간은 1995년 20분, 2016년에는 9분 이하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역의 스크린도어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비슷한 시기에 직접활선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배전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람 중심, 안전 최우선 공법'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온 상황이다.

이에 한전은 안전수칙 준수 교육이나 사고 발생업체 및 작업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 만으로는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없음을 인식, 6월부터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활

선공법 도입 T/F를 운영해 왔다.

간접활선 T/F에서는 간접활선작업이 보편화돼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절연버킷 탐승 작업자가 전력선에 접촉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 스틱(Smart Stick)'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

스마트 스틱은 절연스틱과 선단공구로 구성돼 있어 전선 절단, 압축, 피막, 테이핑, 슬리브커버 설치, 바이패스 클램프 체결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전은 스마트 스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퍼선 슬리브, 슬리브커버, 임시 절연캡 등 부속 기자재도 함께 개발했다.

▲스마트 스틱 2단계 사업 등 통해 작업자 안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할 것

한전은 현재 개발된 스마트 스틱 1단계 사업이 공사 현장의 전체 공법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 '안전'에 무게중심을 둔 2단계 사업을 계획중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진보적인 스마트 스틱(Advanced Smart Stick)'으로 명명한 2단계 사업을 통해 전주 단위 바이패스(By-pass) 공법을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하고, 하반기 시범사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토대로 연내 전사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스틱 2단계 사업'은 스마트 스틱을 사용해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는 바이패스 공구를 설치, 작업하는 공구다. 이를 통해 보다 배전공사 현장과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한전 배전운영처 측의 설명이다.

배전운영처 관계자는 "한전은 '모든 시대에는 시대의 과제가 있다(For Every age, There is a Big task)'를 모토로 현장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joh@

100년 기업을 위한 귀사의 소중한 꿈 리치앤코가 함께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 법인전환 · 명의신탁 · 자기주식 · 직무발명
기업가정신 · 제도정비 · 가지급금 · 초과배당 · 인사/노무

● ○ Rich & Co.

상담문의 02-6205-0340

ISO 9001인증
(주)서울분전반

- 소량주문 환영
- 제작기일 3일
- 품질 제일주의

T) 02-2625-4828
F) 02-2625-4829

성실과 신뢰로 = 유진M&A

- 전기공사업 면허권 양도양수, 분할, 합병
-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
- 공사업 신규등록, 기업진단
- 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문의 환영
- 일반, 전문건설업 신규 매매 정리 문의 환영

(주)유진엠앤에이 대표전화: 02-555-5887
팩 스: 02-557-8003
www.umna.co.kr

전부 30 우수회사를 가다 5면

지정부진 제품안전관리원 설립 9면

전기계 마라톤 1권지현 연구원 20면